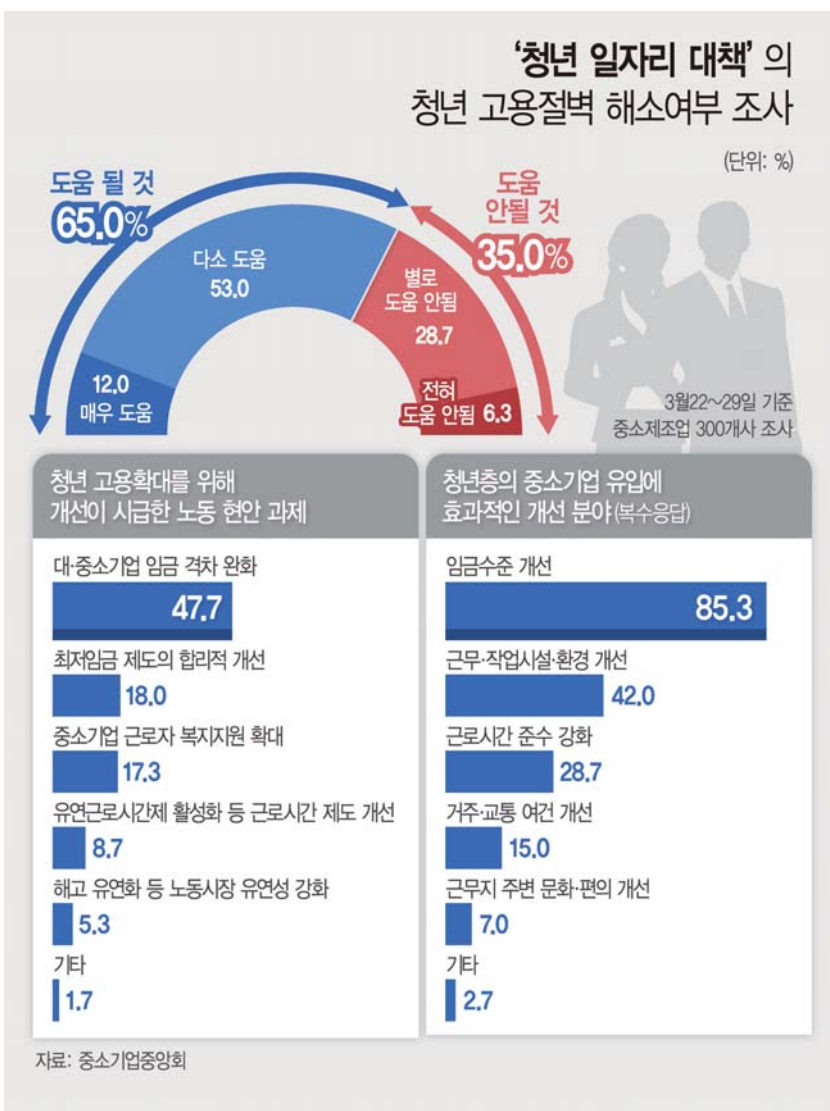


# 中企 65% “청년 일자리 대책 도움 예상”



## 개선 시급 현안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상반기 청년 채용의사 업체 평균 2.9명 계획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 현안 과제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의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 될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5.0%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될 것 12.0% + 다소 도움될 것 53.0%)이라고 답했다. 반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35.0%(별로 도움안될 것 28.7%+전혀 도움안될 것 6.3%)에 그쳤다.

아울러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한 주경 편성 시기를 묻은 결과, ‘4월 국회 통과

등 조속히 처리’(59.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비당파 충분이 협의·조정 후 편성’(28.7%), ‘잘 모르겠음’(11.8%)의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32.3%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 채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미정인 기업이 39.3%, 채용의사가 없는 기업은 28.3%로 조사됐다. 상반기 청년 채용의사가 있는 업체들의 경우 평균 2.9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 현안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선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임금수준 개선’(85.3%)을 선택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고용창출 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 방안으로는 ‘정책금융(산은, 수은) 중소기업 전담화(82.3%)’,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지원 확산(40.7%)’ 등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더 K9’ 출시

기아자동차가 전사적 역량을 총집결한 플래그십 세단 ‘더 K9’을 공식 출시했다.

기아차는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더 K9’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후 6년 만에 풀 체인지 모델로 재탄생한 ‘더 K9’은 기아차 최고급 대형세단이다.

작할 때 해당 방향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표시하는 ‘후측방 모니터(BVM)’ ▲터널 진입 전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내기순환 모드로 전환하는 ‘터널연동 자동제어’ ▲하이빔 보조(HB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국산차 최고, 최다 수준의 안전편의시장을 적용해 차량 이용에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6년만의 풀체인지 모델...현존 최고 주행기술 탑재 스위스 명품 ‘모리스 라크로와’ 아날로그 시계 적용

‘더 K9’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등 세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3.8 가솔린 모델이 5490~7750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은 6650~8230만원, 5.0 가솔린 모델은 9330만원이다.

‘더 K9’의 전 트림에는 차로유지보조(LFA), 전방·후측방·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FCA·BCA·R·RCCA), 안전하차보조(SE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 국내 최고, 최다 수준의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 적용됐다. 12.3인치 LVO 고급형 내비게이션, 시퀀셜(순차점등) 방식의 턴 시그널 램프를 포함한 풀 LED 헤드·리어 램프 등을 기본 적용함으로써 주행안전성, 편의성을 동급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더 K9’은 전장 5120mm, 전폭 1915mm, 전고 1490mm, 축거 3106mm로 기존 K9대비 차체크기를 한층 증대해 웅장한 이미지와 여유로운 공간감을 확보했다.

외장 디자인은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를 디자인 콘셉트로 개발됐으며, 차별화된 시그니처 그래픽, 더욱 커진 차체에서 느껴지는 웅장한 품격이 특징이다.

내장 디자인은 ‘삶의 영감을 풍성하게 하는 공간’을 콘셉트로 개발했다.

‘더 K9’은 세계적인 색상 권위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협업해 플로어 콘솔, 전·후석 플로어 공간, 도어트림 램프갓 등 최대 16개 부위에 배치된 무드 조명 ‘앰비언트라이트’를,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와’와 협업해 고급감을 강조한 ‘아날로그 시계’를 각각 탑재했다.

이 밖에도 ▲방향지시등을 조

## 쑥쑥 크는 ‘페이 시장’

스마트폰 간편결제 · 송금 1년새 3배 급성장 지난해 이용금액 1023억...1년전비 약 3배↑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지난해 3배 이상 급성장했다.

편리함을 무기로 한 각종 ‘페이’ 서비스가 신종 전자지급수단의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7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에 따르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10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28억원)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용건수도 281만건으로 전년(100만건)보다 180.1% 많아졌다.

간편결제는 카드를 모바일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12만건으로 1년 전보다 147.4% 성장했고 이용금액은 672억원으로 158.4% 확대됐다.

‘토스(Toss)’와 ‘케이코(PAYCO)’처럼 모바일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선불금을 충전한 뒤 전화번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간편송금 서

비스도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실적은 각각 68만건, 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 417.3%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비밀번호와 같은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송금 서비스를 지난 2016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해 유통업체 조사의 실적 증가에 힘입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전자지급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46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5%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고 모바일 소액송금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이용건수도 2259만건으로 11.5% 늘었다.

전자지급서비스 중에서는 온라인 쇼핑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결제정보를 송수신해주고 그 대가로 정산을 받는 서비스다. 일평균 이용실적은 638만건과 3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34.4%, 33.7% 늘



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해놓고 대금지급과 송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도 일평균 589억원의 이용금액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92.2% 증가했다. 전당 이체금액이 큰 송금 서비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비 등 고지서 대금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일평균 이용건수는 12만건, 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9%, 84.5%씩 늘었다.

뉴시스

## 3월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대비 하락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98로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0.7% 올랐다. 전월대비 쌀, 사과, 무, 부침가루, 식용유, 양파 등이 상승했고 학교급식비, 오이, 호박, 자동차용 LPG, 상추 등이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하락했다.

3월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2로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는 1.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전월대비 환원비, 공동주택관리비, 굴, 감자 등이 상승했고 학교급식비, 풋고추, 달걀, 오이 등이 하락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